



NEWS LETTER

2020년 6월 15일 Vol. 3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4일 발표한 ‘제1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6.2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총 344개 의료기관에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인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평가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 구조부분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 등 모두 13개의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체 병원 평균 82.2점 중 종합점수 96.2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대장암·폐암 모두 치료 잘하는 ‘1등급 의료기관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대장암·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폐암 5회 연속 1등급, 대장암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수술 등을 시행한 전국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반적인 평가영역에서 평균을 웃도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폐암은 종합점수 100점으로 5회 연속 1등급, 대장암은 99.11점(종별평균 95.99점)으로 6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암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 시설, 장비구축에 있어 암치료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의료혁신’ 외부 명사 특강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6월 8일 5층 대강당에서 ‘의료혁신’을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30여 명의 경영진 및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의 사례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 대응방법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석한 이해원 병원장은 “본원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분당서울대병원의 발전이 놀랍다”며 “이번 강의를 토대로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 본원 의료혁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COVID-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생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인턴 전공의 100일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0학년도 인턴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 1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에 입사 한 지 100일이 된 인턴들에게 첫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것에 대한 격려와 화합을 위한 자리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100일 기념 축하를 위해 전공의 수련위원회 소속 교수 및 전공의(레지던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고생한 인턴대표 1명을 선정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최한석 교육수련부장은 축하인사로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번 행사를 만들어 주신 병원장과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